



綠담笑담

더 좋은 소비로 더 나은 세상을
(BCBW: better consumption
for the better world)

#녹담 #결의문 #GCN녹색소비자연대
#ERRC #녹색소비운동

GCN녹색소비자연대 결의문
(2025.06.18.전국대회 채택)

우리는 2년 마다 모입니다. 모여서 또 다른 2년을 다짐합니다.

전국대회는 2년마다 15개의 지역녹색소비자연대와 녹색소비자들이 모여
향후 GCN녹색소비운동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시민단체로서 이 시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모아냅니다.
이번 제10차 전국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를 하였습니다.

더 좋은 소비로 더 나은 세상을(BCBW: better consumption for the better world)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주체가 녹색소비자임을 확인
하고 지난 5년동안 녹색소비자 행동과제로 3無, 지속가능한 먹거리, 건강안전, 정의·안전·동행
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자행동을 실천 해 오고 있다. 이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성장서사의 소비
사회'가 만들어 낸 깊은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녹색소비자들의 외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요, 편리를 지향하는 소비사회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제10차 전국대회를 맞아
지난 200년 동안 성장, 풍요, 편리 중심의 소비서사가 만들어낸 지금의 위기를 성찰하며,
'사람과 환경을 중심에 둔 녹색소비'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소비서사로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소비자는 기후위기의 원인제공자인 동시에 해결의 주체다.
소비자는 개인이 아닌 모든 생명체와 함께 이 위기를 건너가는 연대자다.
그래서 소비자의 더 좋은 소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소비모델로 친환경·공동체·연대의 가치를 담은
ERRC 모델*을 제안한다.

1996년 GCN창립으로 이미 성장중심의 소비사회 문제해결은 녹색소비가 답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함께 하는 작은실천'으로 세상의 변화의 길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의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새로운 소비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더 크게 세상에
외치고 행동하자.

*ERRC 모델 : 기존의 소비에서 없앨 것은 없애고(elimination), 줄일 것은 줄이고(reduce),
더 늘려야 할 것은 늘리고(raise), 새로 해야 할 것은 창조하는 것(create)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가는 중심에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가 있음을 보여주자.
함께 하는 작은 실천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K-소비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소비사회의 주체로 사람과 환경을 중심에 두는 녹색소비운동을 추진한다.
2. 우리는 이웃, 동물, 숲, 지구와 동행하는 연대적 소비로 더 좋은 소비를 실천한다.
3. 우리는 소비사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녹색소비자로서 녹담소담(綠談笑談)의 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

2025년 6월 18일

제10차 GCN전국대회 참가자 일동



綠담笑담



전 綠담笑담 살펴보기